

끊임없는 노력으로 코스닥 등록은 물론 업계 선두를 지향하기까지, '준비된' 기업

# 이레전자산업(주)



정문식 사장은 “가정은 무엇보다 소중한 곳이며, 기업의 성과도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구성원이 공유해야 한다” 며 기업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서울 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레전자. 지금은 자체 건물을 사용하며 LCD모니터와 PDP, 그리고 CDMA 휴대폰 등 최첨단 전자·정보통신 제품 생산에 몰두하고 있지만 처음 이레전자가 시작한 사업은 전선가공업이었다. 하지만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으로 성장 일로를 달리게 된다.

이레전자가 본격적인 IT제조업체로 성장하게 된 것은 95년, 이동전화기용 충전기와 핸드프리를 개발, 현대전자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후 품질관리, 생산관리에 투자, TL 9000, ISO 9001, ISO 9002, ISO 14001 등 품질과 환경우선의 경영 모토 아래 생산 전 공정의 혁신을 이루었으며, 국내 최소형 900MHz 코드리스 전화기를 개발하여 수출현장에 뛰어 들었다.

이에 힘입어 99년에는 500만 달러, 2000년에는 1000만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이동전화 시장의 급팽창에 힘입어 이레전자는 매년 100% 이상씩 매출이 급신장하는 호황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레전자는 이에 머무르지 않았다. 98년 부설 정보통신연구소를 설립해 주력산업 분야에서의 핵심기술 보유

에 노력했다. 이후 2000년에는 화면 분할이 가능한 일체형 TFT LCD모니터의 특허 출원을 시작으로 디스플레이 사업 분야에 진출했으며 13.3~17인치 TFT LCD모니터에서 대형 PDP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했다.

이로써 이레전자는 정보통신에서 정보전자까지 초우량 기업으로의 토대를 다졌다.

일반 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이 호황일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제품과 기업의 품질관리일 것이다.

하지만 이레전자는 다른 기업들이 사업 다각화에 만 신경 쓸 때 품질관리에 보다 신경을 씬으로 해서



▲ CDMA 휴대폰 생산라인

기업의 신뢰도를 쌓아 갔다. 그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올해 초 코스닥 등록과 더불어 지금까지도 안정적인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 뛰어난 성능의 LCD모니터와 PDP

이레전자는 처음 휴대폰 충전기 제품을 개발, 납품을 시작으로 끊임없는 개발 노력으로 휴대폰(CDMA)을 개발했고, LCD모니터와 PDP까지 개발,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들 이레전자의 제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PDP일 것이다.

이레전자의 PDP 「DAMUT」는 국내 최고 초슬림 81mm 초경량 PDP로 CRT에 비해 약 10분의 1 정도의 두께와 6분의 1의 무게를 자랑한다. 또 완전평면 화면으로 160도 이상의 넓은 시야각을 가져 화면 왜곡 없이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을 시청할 수 있다. 고선명 디지털 대화면은 물론 극장식 와이드 화면 비율 16:9를 실현, 홈시어터(Home theater) 구현에도 적합하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뿐만 아니라 뛰어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 TV는 물론 PC의 모니터로 DVD플레이어와 연결하여 홈시어터로 쓸 수 있으며, 셋탑박스로 디지털 위성방송 시청 등 디지털 디스플레이 통합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레전자가 생산하는 LCD모니터는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되는 등 품질 면에서도 인정받은 제품이다.

이레전자의 '슬림아트 시리즈'는 2000년부터

LCD모니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이레전자를 LCD모니터 전문업체로 성공적으로 변신시키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회사로 자리매김 시킨 제품이다.

이레전자의 슬림아트 시리즈의 성공은 기업 능력에 맞는 마케팅 활동과 최고의 생산기술, 그리고 시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개발 및 전 사원의 품질 마인드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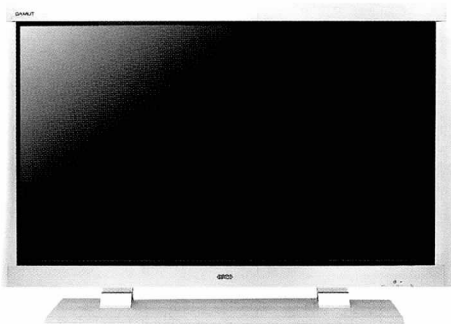
특히 17인치 모델의 경우 국내 최초로 PC방에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LCD모니터 사용에 따른 차별화 포인트를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여러 PC방 업체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인치와 13.3인치 모델은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디자인 면에서도 소비자 중심으로 개발하여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으며 특히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창구 단말기용으로 대량 공급되고 있다.

LCD모니터의 바탕이 되는 영상품질은 최근에 개발된 고휘도 실현, 응답속도가 빠른 패널과 최신 영상처리 기술을 적용해 선명한 화질과 사실적인 색감을 완벽하게 구현해준다.

또한 수직주파수 75Hz 이상에서도 모든 컴퓨터의 화면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외부 노이즈 등에 의한 화면상의 이상 상태를 원터치로 자동 정상상태로 수정 가능하다.

플러그앤드플레이(Plug & Play) 기능으로 DDC 1/2B를 지원하여 LCD모니터가 컴퓨터와 완벽하게 통신, 최적의 상태로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 이레전자가 생산하는 60인치 PDP



▲ 이레전자의 17인치 LCD모니터



▲ 국내 최고 수준의 SMT설비

이레전자만이 제공하는 한글 OSD(On Screen Display) 기능으로 초보자들도 손쉽게 모니터의 설정상태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레전자는 아날로그 방식의 LCD모니터와는 별도로 고품질의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의 LCD모니터를 국내 최초로 시판하여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사 제품의 저변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으며, 디지털 방식의 제품 개발로 기존 CRT모니터 시장을 급격히 대체하고 있는 LCD모니터 시장에서 업계의 선두 대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 생산·품질관리 검증 받은 CDMA 단말기

이레전자는 2000년부터 총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여 CDMA 휴대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월 2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라인과 최첨단 계측기, 그리고 국내 최고 수준의 SMT 설비 등 우수한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사업초기의 과감한 투자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모하다”는 평가와 함께 시기와 질시를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역시 이레전자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성공한 투자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이레전자의 이동전화기는 이동전화 단말기 부문 세계 8위 업체인 LG전자에 월 10만대 이상 공급되는 등,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에서 대외적으로 이미 검증을 받았으며, 회사의 새로운 유망 사업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최고경영자인 정문식 사장의 과감

한 의사결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임직원의 의기 투합과 상호 신뢰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 잘 '준비된' 기업-이레전자

이레전자는 이러한 뛰어난 제품 개발과 품질관리로 LCD모니터와 PDP, 그리고 CDMA 휴대폰 등 정보 기기 쪽의 매출성장과 더불어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이러한 성장세는 '이레'란 말의 뜻 - '준비된'이란 - 처럼 예견된 것이었다.

이레전자가 그동안 수상한 실적만 보더라도 97년 기술신용보증기금 우량기술기업 지정, 중소기업청 100PPM 품질인증 획득, 98년 중소기업청 특허기술개발 벤처기업 지정,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 99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유망중소기업 선정, 중소기업은행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정보통신부 2000년도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선정 등이 있다. 그 이후에도 이레전자는 벤처기업대상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표창과 제 37회 무역의 날 1천만불 수출의 탑을 받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영실적으로 볼 때도 이레전자는 탄탄하다. 지난해 이레전자의 실적은 매출 377억원에 당기순이익 8억원이었고, 금년은 상반기에만 약 210억원 이상의 매출 실적에 반기 순이익은 지난해 연간 순이익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레전자의 또 하나의 장점은 한 가지 제품에 의존하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다양한 사업부문에서 고른 매출을 보인다는 점이다.

올해 매출 목표액을 520억원으로 잡고 있는 이레전자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TFT-LCD모니터 2백억원(약 38%), PDP 150억원(29%), CDMA 단말기 80억원(15%), 휴대폰용 충전기 70억원(14%) 등으로 비교적 고른 비율의 사업부문별 매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모든 제품이 고루 성장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으며, 기업의 기술·경영적 인프라가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001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CDMA 단말기 사업의 경우 국내 2위이자 세계 8위 업체인 LG전자에 월 10만대 이상을 공급하는 등, 생산 및 품질 면에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회사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 전도를 더욱 유망하게 하고 있다.

### 가족같은 회사

이레전자 전직원들은 해마다 김장 걱정을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김장을 담가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겨울에는 직원 및 직원 가족을 위한 스키 캠프를 운영하여 일체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직원 자녀들의 해외 어학연수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재 여러 명의 직원이 야간 대학에 다니며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고 있다. 회사에서 학비 지원은 물론 업무조정까지 해주는 등 각종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다양한 복지정책은 “화목하고 편안한 가정은 활기 넘치는 직장의 밑거름”이라는 정문식 사장의 평소 경영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남들보다 훨씬 힘든 시기를 경험했던 정문식 사장은 “가정은 무엇보다 소중한 곳이며, 기업의 성과도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구성원이 공유해야 한다”며 기업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전선가공업에서 시작하여 CDMA휴대폰과 LCD모니터, 그리고 PDP 생산라인까지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이레전자의 노력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있다. 하지만 그 노력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여백으로 남겨 두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성장세를 주목하는 것이 더욱 흥미진진할 것이다.



대표이사 정문식(鄭文植)

정문식 사장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학비를 벌기 위해 청계천의 앰프공장을 전전했고, 고교(한양공고 야간)를 졸업한 뒤에는 구로공단의 전자부품회사에서 일했다. 그 후 특전사 하사관으로 5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뒤, 군대 생활기간 중에 모은 돈 50만원으로 회사를 설립해 오늘의 이레전자를 일구었다. 거의 회사에서 생활하다시피 한 정사장의 노력은 99년에 산업자원부가 선정한 산업분야 ‘신지식인’ 9명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되는 것으로도 보답을 받았다.

올 초부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을 밟고 있는 정 사장은 “올해는 월드컵 기간동안 호텔과 공항 등에 많은 PDP를 렌탈하는 등 상당한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LCD모니터 및 PDP 매출이 급증,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제 코스닥에도 등록되어 외부의 다양한 주주 등에 대한 부담도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처럼만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정사장은 올해 회사 성장에 대해 “올해 매출 목표는 5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무난히 달성하리라 생각되고, 당기순이익은 40억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히며 환하게 웃었다.